

‘스포츠를 통해 허무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2025 성료

**- 올해 4회째 맞아…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없는 스포츠 생태계 조성 기여**

**- 발달장애 선수와 프로골퍼, 스포츠 인플루언서 45명 함께 참여해 성황리 대회 마무리**

**- 우승 허도경ᆞ준우승 김선영 선수에게 내년 ‘US어댑티브 오픈’ 등 국제 대회 도전 지원**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2025. 08. 12]**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은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국가보훈부 88컨트리클럽’에서 열린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2025’가 30명의 발달장애인 골프선수들과 15명의 프로 골퍼·인플루언서 등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SKT 어댑티브 오픈은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없는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추구하는 SKT 스포츠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SKT 김희섭 PR센터장(부사장), 대한골프협회(KGA) 박재형 전무, 국가보훈처 88컨트리클럽 서정천 대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코리아 김유승 대표 등을 비롯해 발달장애 인식 개선에 공감하는 프로골퍼들과 스포츠 인플루언서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SKT가 후원하는 이승민·김한별·김재희 프로를 비롯해 김하늘, 김홍택, 백석현,배용준, 신상훈, 엄재웅, 이동환, 최승빈, 최진호, 함정우 프로와 심서준(심짱), 정명훈 등 스포츠 인플루언서들은 각각 두 명의 발달장애 선수들과 3인 팀을 이뤄 경기를 치르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날 대회 개인전 우승(상금 1,000만원)은 두 선수가 최종 스코어 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백카운트(Back Count)\* 방식에 의해 허도경 선수(73타)가 차지했으며, 준우승(상금 500만원)은 김선영 선수(73타)에게 돌아갔다. 단체전 우승은 최진호 프로와 황대희, 김태현 선수 팀이 차지했다.

\* 최종 스코어가 동률일 경우 후반 홀 성적 기준으로 순위를 가리는 방식

SKT는 개인전 우승·준우승을 차지한 두 선수가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내년 ‘US어댑티브 오픈’ 및 ‘The G4D 오픈’ 등 국제 발달장애 골프대회 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3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김선영 선수는 SKT의 지원 하에올해 7월 미국에서 열린 US 어댑티브 오픈에 참가해 지적장애(Intellectual Impairment) 부문에서 2위, 여자부 전체 7위를 기록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국내 골프 업계도 지원에 동참한다. 최경주 재단은 우승·준우승자에게 골프용품 세트 및 최경주 프로와 레슨과 식사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회 개최 장소인 88컨트리클럽은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 1년간 매달 1회씩 연습 라운딩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골프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발달장애 미술팀인 ‘로아트(Raw ART)’는 클럽하우스 외부에 소속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고,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앙상블 ‘드림 위드 앙상블(Dream with Ensemble)’은 개회식과 만찬장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발달장애 선수 가족들에게는 라운딩 코스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동반 카트 서비스를 제공해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다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SKT 어댑티브 오픈 2025의 주요 경기 내용과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는 SKT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스크라이크(SKLIKE)’를 통해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김희섭 SKT PR센터장은 ”SKT 어댑티브 오픈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SKT는 스포츠를 통한 ESG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
| --- |
| **※ 사진설명**  사진1.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2025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선수들이 함께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2. SK텔레콤 김희섭 PR센터장(왼쪽 첫번째)과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코리아 김유승 대표(오른쪽 첫번째)가 개인전 우승자 허도경 선수(왼쪽에서 두번째)와 준우승자 김선영 선수에게 시상한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3.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2025 우승자 허도경 선수가 티샷을 날리는 모습  사진4. 발달장애인 미술팀 ‘로아트’ 소속 작가들이 전시한 작품들과 최봄이 작가 |

**▶ 관련문의 : SK텔레콤 PR실 경영PR팀 김동영 매니저(02-6100-3817)**